

<Brief Report>

외현적 · 내현적 자기에의 명시적 · 간접적 귀인양식

박 세 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신 민 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이 훈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로 자기에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두 유형의 명시적 · 간접적 귀인양식을 살펴보았다. 대학생 278명에게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NPDS)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를 실시해 외현적 자기에 집단 28명, 내현적 자기에 집단 33명, 통제 집단 32명을 선발한 후, 귀인양식질문지(ASQ)와 비명백 귀인양식 과제인 실용추리과제(PI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취사건에 대한 명시적 귀인에서 두 자기에 집단 모두 긍정 사건을 부정 사건보다 내부 귀인 하였으나, 집단 비교에서 자기고양 편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부정사건을 외현 및 통제 집단에 비해 외부 귀인 하는 방어적 귀인편향을 나타냈다. 간접적 귀인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의 방어적 귀인편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명시적 귀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고양 편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 :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명시적 귀인양식, 간접적 귀인양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훈 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151-746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FAX : 02-880-6428 / E-mail : hjlee83@snu.ac.kr

자기애의 핵심특성은 웅대하지만 취약한 자기 개념이며, 외견상의 자기평가는 자기방어 때문에 왜곡된 것으로 내면적인 실제 자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Kernberg, 1975). 이들은 취약한 자기상을 복구하고자 늘 자기-확인(self-affirmation)을 받으려 하는데, 사회적 상황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갈망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손상된 자기표상을 복구하고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자기고양전략을 취하게 된다(Morf & Rhodewalt, 2001). 이러한 자기고양전략 중 하나가 귀인편향이다.

자기애성향자들의 귀인편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외현적 자기애에 집중되어 왔는데,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긍정 사건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내부 귀인 하지만, 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흔들리고 외부귀인을 확고히 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Farwell & Wohlwend-Lloyd, 1998; Hartouni, 1992; Rhodewalt & Morf, 1995, 1998). 이 결과는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한 외현적 자기애의 자기고양 및 방어 전략이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과장된 자기지각이 안정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사건 유형이나 귀인 추론 방식을 다양하게 구성한 귀인 과제를 사용해 외현적 자기애의 자기고양 및 방어 전략이 얼마나 안정된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많은 임상가들은 DSM-IV(APA, 1994)에 제시된 자기애와 표면적으로는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유사한 역동과 정서·인지적 특성을 지닌 자기애적 병리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왔다(Akhtar & Tompson, 1982; Wink, 1991). 특히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Kohut, 1971, 1977), 이는 일부 경험적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그렇지만,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이며, 특히 귀인편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외현적 자기애는 취약한 자기개념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웅대성을 과시하지만, 내현적 자기애는 무의식적인 웅대성을 억압하고 겉으로는 이를 드러내지 않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Akhtar & Tompson, 1982; Hendin & Cheek, 1997; Kohut, 1971, 1977; Wink, 1991). 이러한 임상적 차이를 고려할 때, 자기고양전략을 취함에 있어 외현적 자기애는 보다 능동적으로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과대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인 평가에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자기애 집단의 귀인양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귀인 양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즉각적으로 명백한 귀인 평정을 하게 하는 전통적인 귀인양식 질문지(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ASQ; 이영호, 1993)와 더불어 암묵적이거나 명백하지 않은 귀인 양식 측정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알려진 대표적인 비명백 귀인양식 측정치는 Winters와 Neale(1985)이 개발한 실용추리 과제(Pragmatic Inference Task; PIT)가 있는데, 이 과제는 긴 문장으로 구성된 시나리오 4개를 한꺼번에 듣고, 기억과제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귀인 추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귀인과 무관한 3개의 기억 질문과 함께 실시하여 ASQ보다는 간접적으로 귀인 추론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편집증 연구(Lyon, Kaney, & Bentall, 1994), 억압적 성격 연구(Creswell & Lynn, 2002) 등에서 암묵적 혹은 간접적 귀인 측정치로 사용되었으며, ASQ의 결과가 PIT에서는 역전된다는 결과들

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로 볼 때 PIT가 암묵적 귀인 측정치라는 확증은 없지만, 최소한 간접적인 귀인양식이나 비명백 귀인 측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PIT를 사용해 두 자기에 집단(간접적(비명백) 귀인양식을 알아보고, 명시적 귀인 측정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유형의 자기에성향자들이 보이는 명시적, 간접적 귀인양식을 통해 자기 조절 방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자기에 연구에서 핵심을 이루는 자기조절 과정에서의 두 유형간 차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기에 집단의 과장된 자기 지각이 안정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Farwell & Wohlwend-Lloyd, 1998; Hartouni, 1992; Rhodewalt & Morf, 1995, 1998)의 시사점을 귀인양식에 적용해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자기에 하위유형 구분의 타당성 확보와 임상적 개입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임상적 관찰(Akhtar & Tompson, 1982; Hendin & Cheek, 1997; Kohut, 1971, 1977; Wink, 1991)과 외현적 자기에에 대한 일부 선행 연구들(Farwell & Wohlwend-Lloyd, 1998; Hartouni, 1992; Rhodewalt & Morf, 1995, 1998)로 미루어볼 때, ASQ에서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웅대성을 전시하기 위해 주로 긍정 사건에 대한 자기고양 귀인을,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비판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하고 외재화하는 방어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간접적 귀인양식 과제에서는 자기에성향자의 취약한 자기개념과 자기조절 과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러한 귀인 편향이 줄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에 하위 유형에 따라 그 방향이나 정도가 다른지 알아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NPDS)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를 실시하여 외현적 자기에집단 28명(남 16, 여 12), 내현적 자기에집단 33명(남 20, 여 13), 통제 집단 32명(남 18, 여 14)을 선발하였다. 세 집단 간에 성비 차이는 없었다, $\chi^2(2, N=93) = 0.14, ns$. 집단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현적 자기에집단은 NPDS 점수 상위 30% 이상이면서 내현적 자기에척도 중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인 CNS145점수의 하위 50%이하를 기준으로 선발하였고, 내현적자기에집단은 NPDS 및 CNS145 점수의 상위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통제집단은 NPDS 및 CNS145 점수의 하위 30%로 하였다.

측정도구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황순택 1995)

황순택(1995)이 DSM-III-R(APA, 1987)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성격장애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에 성격장애 공유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 문항이며 4점 척도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수정(1999)이 사용한 7점 척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황순택(1995)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68이었으며, 한수정(1999)의 7점 척도 방식에서는 .88로 보고되었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 정남운 2002)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Ahkta와 Thompson(1982)의 이론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이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 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 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공통요인(이하 CNS23)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이하 CNS145)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귀인양식질문지(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ASQ; 이영호, 1993)

명시적 귀인양식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질문지이다. Peterson 등(1982)이 제작하고 이영호(1993)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 부정 각 6개씩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었고, 긍정, 부정 각각에서 성취 사건과 대인관계 사건이 3개씩 구성되어 있다. 이영호와 원호택(1994)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긍정사건의 경우 내부, 안정성, 총체성 귀인 각각 .66, .61, .57이었고, 부정사건의 경우 각각 .40, .69, .61이었다

실용추리과제 (Pragmatic Inference Task, parallel form; PITpf)

기억과제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귀인양식을 확인하는 PIT(Winters & Neale, 1985)의 제작 방식에 따라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8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긍정, 부정 각 4개씩이며, 각각 성취사건과 대인관계사건이 2개씩 구성되어 있

다. 피험자들에게는 일반적인 기억능력을 측정하는 기억과제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자기제시편향이 줄어들 수 있다. ASQ보다 훨씬 긴 한 문단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4개의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피험자들에게 들려준 후, 4개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4개의 질문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사실에 대한 질문 2개와 시나리오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귀인과 무관한 추론을 하는 1개의 질문, 그리고 시나리오의 내용에 의거하여 귀인추론을 하게 하는 표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해 2개의 답을 제시하여 하나를 택하게 하였으며, 표적 질문에 대한 답은 내·외 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PIT 실시 절차

피험자가 실험실에 오면 이름을 확인하고 책상에 앉도록 한 후, 기억력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녹음된 시나리오를 듣고 잘 기억했다가 질문에 답하도록 요청하였다. 녹음된 8개의 시나리오 중 무작위로 선택된 4개의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들려준 후, 각 시나리오에 대한 4개의 질문(3개의 그림자 질문과 1개의 표적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나머지 4개의 시나리오를 실시하였다. 과제가 끝난 후 ASQ를 작성하였다.

설계 및 자료 분석

ASQ와 PIT 실험은 모두 3(2) 설계로 이루어졌다. 피험자 간 변인은 집단(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통제)이었으며, 피험자 내 변인은 사건 유형(긍정, 부정)이었다. 통계분석은 변량분석과 쌍별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내·외 귀인에 있었고, PIT도 내·외 귀인만

측정했기 때문에, ASQ도 내부 귀인 점수만 분석하였다.

결 과

ASQ의 변량분석 결과, 내부귀인에서 집단과 사건 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으며, $F(2, 90) = 3.56, p < .05$, 집단과 사건 유형 각각의 주효과도 유의미했다, $F(2, 90) = 5.29, p < .01$; $F(1, 90) = 5.97, p < .05$. 상호작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변인 별 집단 비교와 사건 유형에 대한 쌍별 *t*-검증을 실시했는데, 내현 집단이 외

현 및 통제집단보다 부정사건 내부 귀인 총점이 낮았다, $F(2, 90) = 7.61, p < .001$. 쌍별 *t*-검증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부정 사건보다 긍정 사건을 더 내부 귀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2) = 3.32, p < .05$.

사건 내용별 분석에서는 성취 사건에서 집단과 사건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고, $F(2, 90) = 5.57, p < .01$, 집단과 사건 유형 각각의 주효과도 유의미했다, $F(2, 90) = 3.56, p < .05$; $F(1, 90) = 23.96, p < .001$. 집단 비교 결과 내현 집단이 외현 및 통제집단보다 성취 부정사건에 대한 내부 귀인 점수가 낮았다, $F(2, 90) = 6.45, p < .01$. 쌍별 *t*-검증에서는 외현적 자기애

표 1. 외현적 자기애집단, 내현적 자기애집단, 통제집단의 내·외 귀인 점수

| 사건 유형 | | 외현적 자기애집단 (n=28) | 내현적 자기애집단 (n=33) | 통제집단 (n=32) | F | Scheffé 검증결과 |
|-----------------------|----------|------------------|------------------|-------------|---------------------|--------------|
| ASQ | 긍정사건(전체) | 29.64(4.00) | 29.00(3.94) | 28.81(3.00) | 0.42 | |
| | 성취 | 15.89(2.31) | 15.54(2.20) | 15.03(2.19) | 1.14 | |
| | 대인 | 13.75(2.68) | 13.69(2.04) | 13.78(2.00) | 0.02 | |
| | 부정사건(전체) | 28.71(5.07) | 25.45(3.37) | 28.94(3.52) | 7.61 ^{***} | 외현=통제>내현 |
| | 성취 | 14.36(3.27) | 12.21(2.45) | 14.56(3.00) | 6.45 ^{**} | 외현=통제>내현 |
| | 대인 | 14.36(2.56) | 13.24(2.68) | 14.38(2.42) | 2.06 | |
| PIT | 긍정사건(전체) | 2.59(0.84) | 2.59(0.84) | 2.66(0.94) | 0.05 | |
| | 성취 | 1.43(0.57) | 1.19(0.64) | 1.25(0.67) | 1.15 | |
| | 대인 | 1.15(0.66) | 1.41(0.61) | 1.41(0.61) | 1.60 | |
| | 부정사건(전체) | 2.42(0.90) | 2.09(1.12) | 2.50(1.24) | 1.19 | |
| | 성취 | 0.96(0.65) | 1.00(0.67) | 1.21(0.83) | 1.11 | |
| | 대인 | 1.44(0.64) | 1.09(0.78) | 1.28(0.71) | 1.82 | |
| 쌍별 <i>t</i> -검증 결과 요약 | ASQ(전체) | | 긍정>부정 | | | |
| | ASQ(성취) | 긍정>부정 | 긍정>부정 | | | |
| | PIT(전체) | | 긍정>부정 | | | |
| | PIT(성취) | 긍정>부정 | | | | |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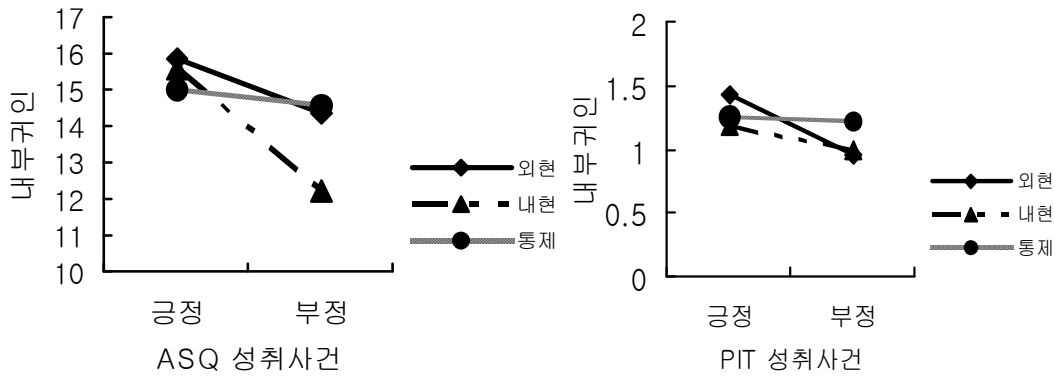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성취 사건에 대한 명시적·간접적 내부 귀인

집단과 내현적 자기에 집단 모두 부정적 성취 사건보다 긍정적 성취 사건에 대해 더 내부 귀인 하는 귀인편향을 보였다, $t(27) = 2.39, p < .05$; $t(32) = 5.29, p < .001$ (표 1 및 그림 1 참조).

ASQ 결과를 요약하면, 내현적 자기에 집단이 부정 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외부귀인 하는 방어적 귀인편향을 나타냈고, 자기고양 편향은 두 자기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두 자기에 집단 모두 부정 성취 사건보다는 긍정 사건을 내부 귀인 하였다.

한편, PIT로 측정된 간접적 귀인에서는 집단과 사건 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쌍별 t-검증 결과, 내현적 자기에집단은 긍정 사건을 부정 사건보다 더 내부 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t(31) = 2.23, p < .05$, 외현적 자기에집단도 성취 긍정 사건을 성취 부정사건보다 더 내부귀인 하였다, $t(26) = 3.12, p < .01$. 즉, 자기고양 편향은 간접적(비명백) 귀인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긍정 사건과 부정 사건에 따른 차이는 간접적 귀인에서도 유지되었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집단이 명시적 귀인에서 보인 부정 사건에 대한 방어적 귀인편향은 간접적 귀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명시적 귀인과 간접적 귀인을 살펴보았다. 명시적 귀인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부정 사건에 대해 외부 귀인 하여 방어적 편향을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이 지지되었다. 또한 두 자기에 집단 모두 부정 사건보다 긍정 사건을 내부로 귀인 하였으나, 집단비교에서 자기고양 편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방어 편향은 지지되었으나,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자기고양 편향은 지지되지 않았다.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이 긍정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자신의 웅대성을 확인 받고자 하고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Kohut(1971, 1977)의 이론과 본 연구의 가정이 내현적 자기에에서만 지지된 것이다.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의 자기고양 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외현적 유형이 만성적인 자기고양전략을 취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긍정적 사건 전반에 걸쳐 명시적으로 내부귀인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Farwell & Wohlwend-Lloyd, 1998;

Raskin, Novacek, & Hogan, 1991a,b; Rhodewalt & Morf, 1995)와도 다른 것이다. 그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연구들이 대부분 자기에 측정치로 건강한 자기에를 측정한다고 여겨지는 NPI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Hall, 1979)를 사용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보다 부적응적인 자기에 성격성향을 측정하는 NPDS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취약한 자기개념이 부적응적으로 작용하는 상태여서 자기고양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가능한 해석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생 자기에 집단이 긍정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을 잘 나타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자기고양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겸양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표현이 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편집증에 대한 귀인연구에서도 대학생집단의 경우 환자 집단과 달리 내부귀인편향이 나타나지 않고, 대신 안정성귀인에서 귀인편향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는데(이훈진, 원호택, 1998), 이 역시 우리나라 대학생집단이 자기고양 편향을 잘 나타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보충 분석에서도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다른 집단과 달리 긍정 사건을 안정적 원인에 귀인 했다.

간접적 귀인양식에서는 명시적 귀인측정에서 나타난 내현적 자기에집단의 방어적 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 외재화하는 내현적 자기에 집단의 방어 전략이 확고하고 안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안정적인 자기고양전략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Rose, 2002)가 방어 전략에도 적용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자기에 하위 유형에 따른 자기조절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방어

전략의 안정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대학생 대상 연구로서 가지는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대학생 중에서 선발된 자기에 성향자들이 임상적 자기에 성격장애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기억과제 형식의 PIT가 측정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귀인양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초기 개발자와 일부 연구자들은(Lyon et al., 1994; Winters & Neale, 1985) PIT가 암묵적 귀인양식 측정치라고 주장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어 본 연구에서도 '간접적' 귀인양식 측정치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PIT에 대한 후속 연구와 더불어 보다 정교한 암묵적 귀인 측정치 개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내외 귀인 차원만 다루었는데, 귀인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총체성, 통제가능성 등 귀인의 다른 차원들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표본과 환자 집단을 사용한 교차타당화와 다양한 귀인 차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 이영호, 원호택 (1994). 귀인양식과 합의성 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심리과학*, 3(1),

- 28-48.
- 이훈진, 원호택 (1998). 편집증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7(1), 105-125.
- 한수정 (1999). 자기에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인지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khtar, S., & Thom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revis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 Author.
- Creswell, C., & Lynn, B. M. (2002). Do repressors differ on indirect and direct measures of attributional style? *Cognition and Emotion*, 16(6), 831-835.
- Farwell, L., & Wohlwend-Lloyd, R. (1998). Narcissistic processes: Optimistic expectations, favorable self-evaluations, and self-enhancing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6(1), 64-83.
- Hartouni, Z. S. (1992). Effect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organization on causal attributions. *Psychological Reports*, 71, 1339-1346.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yon, H. M., Kaney, S., & Bentall, R. P. (1994). The defensive functioning of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rom attribution task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4, 637-646.
- Morf, C.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4), 177-196.
-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 Y., Metalsky, G. I., & Seligman, M. E. P. (1982).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287-300.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Novacek, J. & Hogan, R. (1991a).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 20-38.
- Raskin, R., & Novacek, J. & Hogan, R. (1991b). Narcissistic self-esteem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911-918.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

- 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Winters, K. C. & Neale, J. M. (1985). Mania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3), 282-290.

원고접수일 : 2004. 12. 27

게재결정일 : 2005. 4. 7

<Brief Report>

Explicit and indirect attributional styles of overt • covert narcissists

Se-Ra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Min-Sup Shin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explicit and indirect attributional styles of overt and covert narcissists were investigate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NPDS) and the Covert Narcissism Scale(CNS) were administered to 278 college students. And then, twenty-eight overt narcissistic students, thirty-three covert narcissistic students, and thirty-two control group were selected by using the NPDS and CNS scores. Then,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ASQ) and the Pragmatic Inference Task(PIT) were administered to these three groups. In the explicit attributions, the overt and covert narcissists made more internal attributions for positive events than for negative events. However, there were no group differences on the levels of self-enhancing bias. The covert narcissists showed defensive bias for negative events in ASQ. However, in indirect attributions, the defensive attributions of the covert narcissists were disappeared.

Keywords :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explicit attributional style, indirect attributional style